

# “능인선원도 사기 당했다” VS “보증금 내놔라”

## 능인선원 케레스타 빌딩 갈등

능인선원(원장 지광)이 자금을 투자한 동대문 케레스타 상가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회를 열고 건물의 소유권과 상생협력을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일부 임차인들이 능인선원과 지광 스님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집회를 열어 갈등의 정도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능인선원은 8월 10일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 앞에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법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5일 선원 측은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해 능인선원도 이번 케레스타 사건의 피해자라며 법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임차인들은 선원이 예고한 시간에 앞서 프레스타 빌딩 앞 광장을 차지하고 집회를 먼저 시작했다. 프레이암차인체권자연합회, 임차인연합위원회 등은 지급되지 않은 임차 보증금 70%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증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인이다. 보증금만 지급하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레스타 빌딩은 케이디프레아PFV가 임차인연합위원회의 대표이자 능인선원 신도인 배관성 회장으로 부터 임차인 명의의 가등기를 넘겨받고 본등기로 전환하면서 소유주가 됐다. 임차인들은 케이디프레아PFV 지분 94%가 능인선원 측 소유라며 지광 스님이 사태 해결을 위해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능인선원측은 선원도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배씨로 인한 피해자라며 역을 호소하고 있다. 배관성 회장은 설비 가치를 부풀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혐의로 4월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배 회장이 대출받은 돈을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능인선원은

그동안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나 앞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임차인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원 측은 당초 10시 30분 케레스타 빌딩 정문 광장에서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차인들의 집회로 광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11시 경 선원 신도들이 광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즉각 저지하고 나서자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선원 신도들을 다른 공간으로 유도했다.

결국 선원 신도들은 임차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바로 옆 공간에 자리를 잡고 법회를 시작했다. 양측이 케레스타 빌딩 정문 앞 광장을 분할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선원 신도들은 능인선원과(반야심경), 지장보살정근 등을 하며 법회를 이어갔다. 선원 측에 우호적인 일부 임차인 모임의 관계자들이 법회를 방문해 선원 신도들에게 인사를



지광 스님이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신도들이 뜻을 모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하기도 했다. 선원 측은 우호적인 임차인들도 있다며 신도들에게 이번 사태의 정당성과 선원의 권리를 설명했다. 법회가 진행되는 사이 지광 스님이 도착해 신도들을 응원했다.

지광 스님은 “일부 사람들의 야욕에 흔들리지 말고 뜻과 힘을 모아 이

번 사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것은 부처님 사업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이 건물의 주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도 찾아주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

## “24시간 언제나 달려갑니다”

###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생활의례봉사단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소속 생활의례봉사단은 상장례 포교와 불교적 의례의 중요성을 신심을 다해 전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기 쉬운 상장례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를 펼치는 이들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마저 숙연하게 만든다.

강호원 단장은 불교가 상장례에 관심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강 단장은 “일상의 의례를 불교적 가치로 재조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매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상장례 봉사를 위한 교육과 자원위원 스님들로부터 수시로 조언을 받는 등 전문성

소리를 듣고 상주들이 눈물을 흘린다. 그런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병순 총무차장도 “평소에 몸이 안 좋아도 봉사가 있다는 연락이 오면 힘을 내서 참여 한다”고 밝혔다.

봉사단원들은 포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단원들은 봉사를 통해 삶의 변화를 느끼고 불법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정순진 재무부장 “상장례 봉사는 맹목적인 종교관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영춘 봉사부장도 봉사단 참여 후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느낀다고 한다. 유 부장은 “절에 다니다가 염불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생업 활동에서 별도로 시간을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보람을 느끼고, 배우는 것도 많다”고 밝혔다.

이들의 활동은 상장례 봉사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 혼례식, 이주 노동자 추모법회 등에서도 봉사단의 활동은 빛을 발한다. 특히 올해는 제1회 포교원장배 이주배구대회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직접 대회에 출전도 하고, 전품 음식을 만들어 시연회도 열었다.

강호원 단장은 “봉사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내 일이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다. 불교 상장례의 생활 속 확산을 위해 더 많은 불자님들과 종단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02)720-1079 박기범 기자

### 염불 소리에 상주들 눈물 깊은 발심으로 무료 봉사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스님들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되던 시댁 의식을 재가자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깊은 발심을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봉사단의 모습에 이런 우려는 금새 사그라진다.

봉사단의 남모르는 노력과 무료 봉사로 상장례 의식을 진행하다보니 출범 1년 만에 불자들 사이의 인식이 높아졌다. 장례식장에서 염불 소리를 듣고 다른 방에 있던 불자가 즉석에서 염불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병복 총무부장은 “불자님들의 많이 고마워한다. 우리의 염불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생활의례봉사단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 사회통합위, 평신도 협의체 제안

### 지속적 교류·소통 필요성

사회통합위원회가 종교계 평신도 대표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는 종교계 평신도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7월 2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마련했다. 7대 종단 평신도 대표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종교간 상호 존중과 사회 통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특히 성직자 중심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같은 평신도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송석구 위원장은 “평신도 협의체가 필요할 것 같다.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평화의 시작 원폭피해자 추모부터”

### 원폭피해 66주년 추모제 시민사회계와 공동 주최

한국인 원폭피해 6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가 8월 6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개최됐다.

올해 추모제는 그동안 국가와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조촐하게 진행되던 것을 합천평화의 집,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태안회, 합천 평화의집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추모제는 사진 및 영상전, 청소년



원폭피해 희생자 추모제가 올해는 시민사회의 관심속에 개최됐다.

평화캠프 등이 진행됐다. 윤여준 합천평화의집 원장(前 한경부 장관)은 “원폭피해자와 희생자

를 추모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총국 성불사 ‘불교교육관’ 증창불사

###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도량이 첫 삽을 떴다.

공군교육사령부는경남 8월 11일 진주시 소재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총국 성불사(주지 화엄)의 불교교육관 신축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새로 짓게 될 불교교육관은 동시에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층 898㎡ 규모로 건립된다. 불교



교육관 불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법당의 전기운동판넬, 창문 및 출입문 교체 등 개·보수불사가 이어져, 2012년 5월 29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 여성불자 교육환경 개선 나선다

### 조계사 인근, 교육장 계획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예주)이 여성 불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주력 사업인 교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해 2012년 ‘여성불자 전용 교육장’을 마

련할 계획이라고 8월 12일 밝혔다. 현재 불교여성개발원은 교육, 회의, 회원모임 등을 위해 매년 500만원 가량을 외부 대관료로 지출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사무처장은 “내년까지 조계사 인근에 전용 교육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 대학생 불자들 한 자리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8월 11~14일 고창 선운사, 김제 금산사에서 ‘영 부디스트 캠프(Young Buddhist Camp, 이하 영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공 Maitreya(미트)’라는 주제로 대불련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은정 기자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삼봉) 스님이 평생 체험한 대체의학의 신비를 공개하며 전수자를 찾습니다

나 金永生은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사람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집념으로 정신 수련 중에 46세 8월에 왼쪽 수족이 마비되어 병원진찰 결과 급성뇌종양이며 수술도 할 수없는 위치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 수련 중에 삼매경에 들었는데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 받으며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을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생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으며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1일 2시간정도 수련시키며 은용해수를 먹이면 어떠한 질병도 회복된다 하시며 은용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보니 내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은가.. 신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천지신명께 대례 3배를 올리고 논산집에 와서 3일간 잔치를 하고나서 청계천 전기상회를 찾아가 은용해 기구를 만들어 생수 5리터에 은봉을 담구었더니 은이 분해되어 35분 정도 되니 뜨물같이 뿌연해졌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식도암, 간암, 폐암, 위암, 자궁암, 직장암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며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병원 진찰결과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30여년동안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가 20여년이 넘었는데도 많이 치유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청주에서 위 전체에 암이 번져 위를 다 들어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위암 환자가 찾아 왔기에 은용해수를 100일 복용시킨 뒤 재검사 해봤더니 암 세포가 많

이 줄어들고 체중도 10kg정도 늘어났다 합니다. 둘째 평생두통, 견비통,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 환자에게는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1주일에 1번씩 4-5회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천여명이 넘는다.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는 목적이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드리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드리자는데 있습니다. 천하 제일의 민중의술의 대가란 호칭을 받으면서도 천식 침해환자, 자폐증, 퇴행성관절염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글리코 영양소가 개발되었다. 글리코 영양소는 현재 전 세계 의료분야 및 의학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키워드이며 항생물질 유전자를 잇는 제4의 의료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식침해환자, 자폐증 아이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몇 개월 복용시켰더니 너무도 신기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해봤기에 각 사찰 스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 광고합니다. 천의선도 비전은 종교 지도자님께만 전수합니다.

###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1  
매주 월요일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봉빌딩 403호  
전 화 : 010-4933-4528

